

# GS칼텍스, 윤활유 중국시장 “노크”

## 등평윤활유와 브랜드 협력 MOU ... 인디아법인 설립 이어 해외사업 강화

GS칼텍스가 중국 3대 자동차 메이저인 등평자동차의 윤활유 자회사 등평윤활유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중국 윤활유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GS칼텍스(대표 나완배)는 5월15일 등평윤활유와 공동 브랜드(Co-Branding)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월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됐으며, 등평윤활유의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판매망을 구축함으로써 등평자동차 계열사의 OEM 제품 공급 등 개발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GS칼텍스의 우수한 기술력과 등평윤활유의 현지 네트워크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고품질 윤활유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현지 시장에 맞는 상품 개발과 시장 운영, 마케팅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브랜드 협력 MOU는 GS칼텍스의 고품질 윤활유 생산기술과 노하우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며 “인디아법인 설립에 이어 중국시장 공략을 통해 해외 윤활유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윤활유 시장규모는 12조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 윤활유가 64%, 산업용 윤활유 34%, 기타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연평균 6% 이상 고성장하고 있다.

GS칼텍스는 2010년 인디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윤활유 시장을 적극 공략해 현재 20% 수준인 윤활유 수출비율을 2015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16>